

한국 경제건설 초석 다진 '산업전사'

한국 간호사들이 1966년 근로자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독일로 건너간 지 만 50년이 흘렀다. 1976년까지 파견된 간호사만 1만226명에 달한다. 꽃다운 청춘의 이들은 차별을 견디며 급여 대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했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데 보태졌다.

재독한인간호사협회(회장 윤행자)는 한국 간호사의 독일 파견 50주년을 기념하는 '파독간호사 50주년 기념행사'를 20~21일(현지시간) 독일 예센 파독광부 문화회관 등에서 개최한다.

20일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파독간호사 50년의 역사', '21세기의 글로벌 간호'를 주제로 기초강연, 주제 발표, 토론 등이 이어진다. 대회 이후에는 파독간호사로 구성된 합창단, 한국무용단, 초대가 수축하무대가 꾸며진다.

■ '파독간호사 50주년 기념행사' 獨 에센서 개최

1966년부터 10년간 1만여명... 이민통합 롤모델

"지원책 마련하고 후손에 공적 알리는 작업 필요"

다음날에는 노베르트 람메르트 독일 하원의장 등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이경수 주독 한국대사 등과 함께 파독간호사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파독간호사들은 언어, 음식, 문화적 충격을 견디며 독일 각지 병원에서 진찰과 성실로 환자를 대한 끝에 '블루 엔젤', '주사 잘 놓은 간호사'란 찬사를 들었다. 하지만 초기에는 차별과 무시를 견디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도 많았다.

진실화해위는 보고서에 따르면 1964년부터 1975년까지 간호사와 광부를 포함한 파독 인력의 송금 총액은 1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곡절을 겪으며 독일 사회를 파고든 간호사들은 광부들과 함께 한독관계의 고교가 됐고, 독일 한인사회에 깊게 뿌리내렸다. 독일 정부는 간호사들이 기초를 다진 현지 한인사회를 '이민통합의 롤모델'이라 부른다. 한인 간호사들은 결혼 적령기가 되자 대부분 독일 남성과 결혼했고

일부는 파독광부와 가정을 꾸렸다.

1만여 간호사는 현지 잔류, 제3 외국이주, 귀국이라는 세 갈래 선택을 했다. 독일에 남은 이들의 30% 정도, 숫자로는 600~700명이 독일인과 결혼했다는 추정이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 독일에 남아 있는 파독간호사는 2800여 명(재독한인간호협회 추정)으로, 대부분 60대 중반에서 70대 후반이다. 이들의 공적을 정확하게 평가해 우대하고 후손에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광주일보는 올해 1월부터 재독 칼럼니스트 박경란씨가 집필하는 '파독 50년 호남출신 간호사 인생스토리'를 연재, 광주·전남·전북출신 파독 간호사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연원뉴스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광주 만든다

市, 내일 '창업도시 광주' 선포 지식산업센터에 창업지원센터

광주시가 '창업도시 광주'를 선포하고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비전을 제시한다. 최근 최악의 실업률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시민의 날인 21일 오후 5시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선언식을 열고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창업 성공을 위한 시의 지원 의지를 대내외 알린다고 19일 밝혔다.

민선6기 광주시는 청년일자리 확대와 청년창업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평했다. 지난 2월 청년창업지원협의회를 발족해 창업지원기관 16곳이 협업에 나섰다.

청년창업특례보증으로 200억원을 마

련해 초기 창업가의 자금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창업도시를 선도할 컨트를 타워 구축을 위해 오는 7월 동명동에 들어설 광주지식산업센터 내에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창업 희망 청년에 대한 원스톱 지원과 테크숍을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가와 투자자와의 매칭데이, 각종 창업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선언식과 함께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창업 관련 지식을 겨루는 창업 골든벨 행사도 한다.

현장에는 참가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줄 창업 전문 멘토도 함께 한다.

이종환 광주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창업도시 선포를 계기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 완화"를

광양만권 등 7개 경제구역청 14개 시급 과제 정부에 건의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 완화 등 14개 시급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해 경제자유구역 상호 협력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16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으고 가장 시급하고 우선해 개선해야 할 과제 14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채택한 개선과제는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 완화, 경

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전대 허용, 경제청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 개발계획 미수립지 도시경관계획 수립 예외 인정, 창업 초기 국내 기업에 대한 임대 산단 지원, 외국 교육기관 설립지적 완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등이다.

또 자유무역지역 전량 수출입중에 대한 입주제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내 자유무역지역 절차 간소화 및 관리주체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건의 등 모두 14가지다.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해 국가발전을 이끄는 국제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남도는 중학교 교육 과정 중 하나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산림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산림휴양과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이 개발된 산림체험 프로그램에는 '친구와 한마음 되기', '치유·명상', '식물학자·산림항공사 등 산림전문직업 탐색', '목공예', '산림스포츠레저' 등 20개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500회, 중학생 1

만80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진로체험처인 '꿈길'에 산림체험프로그램 등록을 마친 상태다.

전남도는 학생들이 학교 숲 및 산림시설 등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가까운 산림교육 기반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 전문가인 숲해설가와 숲길체험지도사 39명을 각 시·군에 배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는 19일 광주시민 식수원인 화순 동북호에서 동구 용연정수장을 연결하는 도수터널(물길) 건설사업이 마무리돼 다음달 27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저수율에 따라 취수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47m 높이로 건립한 취수탑.

광주시민 식수원 새 물길 7월6일 개통식

도수터널 착공 5년만에 마무리

화순 동북호~용연정수장 연결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화순 동북호에서 동구 용연 정수장을 연결하는 새 물길이 다음달 완전히 뚫린다.

화순 안양산, 무등산 자락 등을 관통하는 장장 12.068km다. 터널 직경도 사람이 서서 걸어갈 수 있는 2.1m에 이른다. 광주시는 19일 "동북계통 자연유하식

도수(導水)터널 건설사업이 모두 마무리돼 시운전을 거친 뒤 다음 달 27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공사에 들어간 지 5년 8개월만이다. 사업비는 845억원이 투입됐다. 도수터널의 가장 큰 특징은 동북댐과 용연 정수장의 고도차를 이용, 수압과 중력만으로 물을 흘러보내는 이른바 자연유하식(自然流下式) 방식, 자연친화형이다. 산 높이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곳은 530m, 낮은 곳에 82m에서 관로가 지난다. 평균

유속 초당 1.28m의 속도로 동북호에서 출발한 원수가 정수장까지 도달하는 데 2시간 36분이 걸린다.

광주시가 이 방식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10km가 넘는 긴 거리를 중간에 가압(加壓)장치 없이 원스톱으로 보낸 경우는 동북 도수터널이 국내 최초다.

도수터널과 함께 47m 높이의 취수탑도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건립했다.

일정한 위치에 고정해 있는 기존 시설과는 달리 저수율에 따라 취수구(取水口)를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내에 단 4곳만 설치된 시설로 알려졌다.

깨끗한 층의 물을 찾아 선택적으로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광주시는 동북호에서 1일 30만t, 주암호에서 17만t 등을 받아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유용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하 120m의 암반층을 통해 물이 공급돼 도수관 파손 등의 우려가 없어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에도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새 물길을 뚫은 역사적 개통식 행사는 7월 6일 도수터널 출발지인 동구 용연 정수장 현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 소아과 / 내과 / 백내장 / 녹내장 / 안과 / 눈성형 / 노안



백운광주안과

법무법인 맥 설립인사

그동안 각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뜻을 모아 '법무법인 맥(脈)'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반 소송업무(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뿐만 아니라 기업법률 자문분야 등에서도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출발을 축하하는 조출한 소연을 마련하였으니 참석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16. 5. 20.(금) 16:30

● 장소 : 광주 동명로 106
법무법인 맥 빌딩 1층

대표변호사

조재건 서정암 문방진 노로 권오성

구성원 변호사



조재건
사법연수원 24기
전 순천지법 부장판사



서정암
사법연수원 26기
전 광주고법 판사



문방진
사법연수원 26기
전 장흥지원장



노로
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법 검사



권오성
사법연수원 33기
전 광주지법 검사

소속 변호사

윤철호(사시 45회) 박충배(변시 1회)
김경욱(변시 1회) 민양이(변시 3회)
정은혜(변시 3회) 류노엘(변시 4회)
정찬욱(변시 4회)